“천년고도 역사 나주의 멋, 런웨이에 서다”

천년나주목읍성문화축제 15~17일 나주읍성권 일원
한복쇼·전통무예·취타대 행렬 등 ‘조선 문화도시’ 재현

나주시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나주읍성권 일대에서 ‘제6회 천년나주목읍성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제공=나주시청

나주시가 천년 고도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현대적 감성으로 풀어낸 ‘제6회 천년나주목읍성문화축제’를 통해 나주읍성 일대를 전통과 흥이 어우러진 문화축제의 장으로 물들인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나주읍성권 일대에서 ‘흥미진진’을 주제로 ‘제6회 천년나주목읍성문화축제’를 개최한다.

특히 축제 첫날인 15일 오후 6시 30분 정수루 특설무대에서 개막식이 열리며, 이어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2026 천년나주목읍성문화축제 전통의상 한복쇼’가 펼쳐져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번 한복쇼는 단순한 전통의상 전시를 넘어 유년부터 삶의 풍속까지 나주의 역사와 정신을 입체적 서사 형식으로 풀어낸 공연으로 구성된다.

금성관과 정수루 일원을 배경으로 역사적 장소성과 공연 연출을 결합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으며 시간의 흐름과 사회 구조를 반영한 이야기형 무대 구성이 특징이다. 공연은 ‘흥미진진’이라는 주제 아래 유년, 문·무, 권위와 위엄, 생활과 문화로 이어지는 총 3막의 탄탄한 서사 구조를 띠고 있다.

제1막 ‘꿈꾸는 씨앗’에서는 ‘전통은 계승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문화가 된다’는 연출 의도를 바탕으로 국공립소영어린이집 원생들이 무대에 올라 전통문화의 미래적 계승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제2막 ‘선비의 정신’에서는 전문 무예단의 독무와 군무를 통해 문과 무를 겸비한 나주목의 역사성을 표현하며, 절제된 선비 정신과 역동적인 무예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권위와 통치’로 이어지는 탄탄한 서사적 연결 고리를 제공한다.

제3막 ‘흥미진진’에서는 유학자의 기품과 나주목의 통치 권위, 백성들의 일상과 백년가약의 순간까지 천년 나주의 공동체 삶을 한 폭의 풍속화처럼 무대 위에 재현하며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의 또 다른 대표 콘텐츠로는 수문장 교대의식과 오위진법 사열, 전통무예 시연으로 구성된 ‘수문장, 나주성에 서다’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16일 망화루 앞에서 펼쳐지는 취타대 행렬과 수문군 퍼레이드는 궁중문화의 품격과 규모를 재현하며 관광객들에게 웅장한 볼거리를 선사할 전망이다. 조선시대 보병 전술인 ‘원앙진’ 시연과 취타대 연주, 수문장 교대 의식은 타지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나주만의 전통문화 콘텐츠로 축제의 몰입감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기간 나주읍성 곳곳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나주읍성 주요 명소를 둘러보는 ‘나주읍성 한바퀴 스탬프 랠리’를 비롯해 조선시대 장터 분위기를 재현한 ‘조선 성내장 시전거리’, 티니핑 가든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조정임 나주시 관광문화녹지국장은 “전통의상 한복쇼와 수문장 교대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5월의 특별한 추억을 나주에서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담양군문화재단 생활문화축제 ‘월담’ 열린다

다미담예술구 일원…내달 7일까지·매주 주말 운영

지난해 열린 생활문화축제에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제공=담양군문화재단

담양군문화재단은 2026 생활문화축제 ‘월;담’을 오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주말마다 다미담예술구 일원에서 개최한다.

‘월담’은 월담개화(月潭開花)의 줄임말로, 일상을 넘어 피어나는 문화를 슬로건으로 내건 축제다. 담양의 로컬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지역민은 물론 담양을 찾은 관광객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주무대에서 펼쳐지는 개막 퍼포먼스 뮤지컬 ‘웰컴 투 월담2026’을 시작으로 △월담화랑(지역 작가 기획전·작가와의 만남) △무드살롱(버스킹 공연) △담장토크(예술가 및 상인과의 토크쇼) △무비나잇(천원 맥주와 함께하는 흑백영화 상영) △월담투어(1박 2일 여행)까지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시장 프로젝트는 행사 기간 중 다미담예술구 거리에서 △줍줍마켓(플리마켓)과 △월담상품(다미담예술구 상가 상품) 판매를 상시 운영하며, 오후 4시에는 △반값마켓(담양 농특산품 반값 판매)도 이벤트로 진행된다. 즐길거리와 담양 상설시장의 먹거리까지 더해져 ‘월담’에서의 하루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 관계자는 “올해 준비하고 있는 ‘월담’은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미담예술구 예술가 및 상인들과 함께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양=이시수 기자 lss270@gwangnam.co.kr

함평 ‘과수 탄저병’ 예방 총력…방제 약제 배부

함평군이 지역 과수 농가의 최대 적이라 불리는 ‘탄저병’ 예방 대응에 나섰다.

13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 탄저병 예방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방제를 위한 약제를 배부했다.

이번 교육은 감, 대추, 사과 등 지역 내 과수 농가의 병해충 피해를 줄이고 고품질 과실 생산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과수 탄저병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급격히 확산한다.

병이 발생하기 전 주기적인 예방 관리와 적기 약제 살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번 발병하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완전 치료가 어려워, 생산량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따라서 사전 방제와 초기 대응이 농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센터는 교육을 통해 탄저병 발생 기작 및 예찰 방법 강우 전후 약제 살포 요령 등 실무 중심 대응 전략을 전수했다.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가 내리기 전 약제 살포를 반드시 완료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

영광,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방 운영

영광군은 농번기를 맞아 농촌지역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주말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해당 사업은 돌봄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험과 놀이 등을 마련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사업 대상인 법성어린이집에서는 2세부터 10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주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농번기 돌봄 프로그램으로는 놀이활동, 독서지도, 생태체험 등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아이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

컨벤션홀 임대

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사옥 1층)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광남일보 임대문의 : 062)370-7080